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4.8.5(월)	담당부서	문학/K-Story	
연락처	323-936-7141(x131)/ young@kccla.org	담 당 자	노지영	

LA한국문화원, 눈물과 감동의 한인입양인 스토리 “Finding Family” 개최

- 8.19(월) LA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해외한인입양인협회(325KAMRA)와 공동으로 열려
- 입양가족의 일화를 담은 책 “Together At Last”, 다큐멘터리 “Relative Strangers” 스토리텔링 등 행사 개최



- ▶ 행사명 : 미주 한인입양인 스토리타임 “Finding Family”
- ▶ 일시 및 장소 : 8.19(월) 6PM/ LA한국문화원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해외한인입양인협회(325KAMRA)
- ▶ 행사문의 : LA한국문화원 노지영/ young@kccla.org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6시 문화원 아리홀에서 **미주 한인입양인 스토리타임 “Finding Family”**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한인입양인협회인 325KAMRA(회장 린다 파피 라운즈(Linda Papi Rounds))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한인입양인 6명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입양 스토리가 담긴 책 “Together At Last” 낭독을 통해 입양과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과 분노,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관객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었으며, DNA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출생, 생모 또는 생부와 가족을 알게된 이야기 등 눈물과 감동으로 점철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에미상 수상경력에 빛나는 딘 볼셰이 임(Deann Borshay Liem) 다큐멘터리 감독의 신작 “Relative Strangers”에 담긴 입양 스토리와 주요 장면도 스크린을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한인 입양인들이 겪은 상실과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통해 발견한 이야기를 다룬다. 딘 임 감독은 한인 입양인 출신으로 ‘전쟁’, ‘기억’, ‘가족’, ‘정체성’의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주로 제작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First Person Plural”, “In the Matter of Cha Jung Hee”, “Geographies of Kinship” 등이 있으며, 한국전쟁에 관한 “Memory of Forgotten War”, “Crossings”도 제작했다.

이 행사는 한인입양인 이야기와 가족의 다양성 등에 관심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생물학적 가족을 찾아볼 수 있는 DNA 키트를 소개하고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므로 자신의 배경을 아직 알지 못할 경우에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행사 참석 예약(RSVP)은 문화원 홈페이지(kccla.org)에서 가능하다.

LA한국문화원 정상원 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흩어진 많은 한인 입양인 중 상당 수가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번 행사는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한 한인 입양인의 이야기를 책과 영화로 만나보고, 한인입양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

* 강연자 및 강연 주제

Sally Oster: "A Tree Firmly Rooted"

Lisa Futrell: "My Cousin Became My Brother"

Bella Siegel-Dalton: "No Longer an Orphan"

Robyn Joy Park,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Prologue"

Jessica Maryah-Lee Owens: "Korea in Our Hearts"

Linda Rounds: "Completing the Picture of a Life in Black and White"